



김제 백구면 주민자치위 청년농, 농산물 나눔

김제시 백구면 행정복지센터(면장 김정곤)는 백구면주민자치위원회에서 특색사업으로 재배한 감자와 김제 스마트팜 입주 청년농들이 재배한 토마토·상추를 지난 16일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1,600㎡ 면적의 농경지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지난 3월부터 감자를 식재하고 제초작업, 브루기 작업 등을 하며 정성껏 가꿔 감자 150박스(10kg 기준)를 수확했다. 경로당과 취약계층에 제공하고 남은 감자는 공판장에 판매할 계획이며 이 수익금은 봉사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사랑의 농산물 나눔 행사에 지난 4월 백구농특산물 전시·홍보 행사를 계기로 백구면주민자치위원회와 유대관계를 형성한 김제 스마트팜 입주 청년농들이 동참하여 따뜻함을 더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 산동면 건설과, 농촌 일손돕기 나서

남원시 산동면과 건설과 직원 40명은 지난 16일 산동면 대기리에 위치한 감자밭에서 농촌일손돕기로 서투른 손길이지만 한마음으로 무더위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감자를 수확했다.

수확한 감자는 박스에 포장해서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 및 경로당에 전달해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였으며, 농기주는 “공무원들이 비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시간을 내어 도와줘 고맙다”며 감사를 전했다.

한편 이현재 산동면장은 “수확한 감자를 관내 저소득층과 경로당에 나눔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농가주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경찰서, 치안성과보고회 개최

김제경찰서(서장 김영록)는 지난 16일 김제 시민의 치안 안전 환상을 위한 2023년도 치안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치안성과 보고회는 각 과장, 계·팀장, 지·피출소장 등이 참석해 2023년 현재까지의 치안 성과 분석 및 평가와 함께 김제 시민의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한 치안성과 목표 설정 및 향후 계획을 각 기능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영록 서장은 “김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치안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며, 도전 과제라는 것을 각 기능에 강조하였고, 치안고객만족도와 체감안전도 향상으로 김제 시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 플랫폼 역할 최선”

군산대 이장호 총장, 전북자동차포럼 신임 공동의장 취임

국립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이 전북자동차포럼 공동 의장으로 취임해 전북자동차포럼을 이끌게 되었다.

취임식은 지난 15일 국립군산대학교 본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41회 전북자동차 춘계포럼 및 공동의장 이취임식’에서 진행되었고, 취임식에는 김방신 타타대우상용차대표, 강희성 호원대학교 총장, 이계철 군장대학교 총장, 강임준 군산시장, 김영일 군산시의회장, 국기산단입주기업대표 및 관련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전북자동차포럼은 지역 내 대학과 전라북도, 군산시,

지역혁신기관, 협력업체가 참여한 민간포럼으로, 산업계와 학계에서 각각 대표를 선출하는 공동의장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장호 총장은 앞으로 2년 동안 김방신 타타대우상용차 대표이사 사장과 공동의장직을 수행하며, 자동차포

럼 및 전북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이장호 총장은 “군산형 일자리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회원사들과의 멤버십, 네트워킹, 기술개발에 힘쓰고, 특히 포럼이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 미래산업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장대학교, 국립군산대학교가 새만금국가산업단지에

조성하고 있는 연합캠퍼스를 중심으로, 우수인재를 적

절한 시기에 적절한 규모로 제공해서, 기업들이 인력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또한 이 총장은 “지금까지 포럼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신 선배 의장님들과 전임 의장이었던 군장대학교 이

계절 총장님, 공동의장을 맡아오신 타타대우 김방신 대

표이사 사장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김제 광활면 주민자치위, 두부 나눔 위해 콩 심어

김제시 광활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관수)는 지난 16일, 자치위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두부 나눔 행사’에 사용할 두부 제조용 콩을 심어했다.

2019년부터 진행된 ‘사랑의 두부 나눔 행사’는 주민자치위가 직접 수확한 콩으로 두부를 만들어 관내 750여 세대와 마을 경로당 등에 전달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달하고 한 가족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행사이다.

콩심기를 비롯하여 친환경 농약 살포 제초작업, 콩 순자르기, 수확 등 행사를 위한 일련의 모든 작업들은 주민자치위원회들이 직접 수행할 예정이며, 식재한 콩을 수확하면 연말에 ‘사랑의 두부 나눔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관수 주민자치위원장은 “앞으로도 주민자치위원회들이 정성 들여 가꾼 먹거리를 관내 주민들과 경로당 및 취약계층 등에 지속적으로 제공해 더불어 사는 광활면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소방서,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출전 구슬땀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는 다가오는 ‘제21회 전라북도 119소방동요 경연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국립립 뿐뿐뿐 어린이집 원아 20명이 구슬땀을 흘리며 안무를 맞추고 노래를 연습하고 있다고 지난 16일 전했다.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자리나는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노래하면서 자연스럽게 안전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어린이집 김형석 원장은 “어린이들이 소방동요대회를 통해 자신감을 얻고 행복한 추억을 쌓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경찰서, 장애인시설 성범죄 예방 합동점검

정읍경찰서(서장 홍동석)는 자치경찰제의 일환인 사회적 약자 대상 장애인 성폭력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해 유관기관인 정읍시성폭력상담소와 협동으로 자에원 등 관내 장애인시설 7개소를 방문해 장애인 성폭력 및 학대여부 등 범죄 예방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시설 거주 장애인 및 종사자 대상으로 설문 조사지를 활용하여 개별 면담으로 성폭력 등 범죄피해 사실을 파악하는 등 성범죄 예방 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장애인·시설주·종사자 대상 △피해인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지원제도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 촬영 및 불법 촬영물 유포,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한 성폭력 노출 사례 교육을 통해 신종 성범죄 형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정읍=김대환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